

(2026년 8월 31일 월요일 5면)

송파구의회

육영학교 학부모 대표·운영위원 간담회

송파구의회(의장 손병화)는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오전 의장실에서 육영학교 학부모 회장 및 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손병화 의장과 지정수 의원을 비롯해 육영학교 교장 및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참석자들은 송파구 내 유일한 사립 특수학교인 육영학교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, 노후 시설

증축 추진,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·돌봄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.

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은 고등·전공과정 학생들의 교육 공간 부족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, 졸업 후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충 등을 건의했다.

손병화 의장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“오늘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

를 바탕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”며, “발달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”고 밝혔다.

송파구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,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서 및 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.

